



##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131.0억 달러( $\Delta$ 14.6%), 도착 72.9억 달러(+2.7%)

- 미국 관세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 속에 투자신고 감소
- 지난해 양호한 투자신고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자금 도착은 안정적 추세

**【총괄】** 2025년 상반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131.0억 달러, 도착은 2.7% 증가한 72.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신고】** 2025년 상반기 투자신고는 131.0억 달러( $\Delta$ 14.6%)를 기록하였다. 미국 관세 정책과 지난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신규 투자 보류가 지속되면서 투자 의향을 나타내는 외국인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다.

**【유형】** 그린필드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한 109.7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M&A는 전년 동기 대비 44.6%로 대폭 감소(21.3억 달러)하였다.

**【국가】**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프로젝트 입찰 결과에 따라 EU의 올해 상반기 투자신고가 소폭 증가(22.4억 달러, +14.5%)하였고, 미국 또한 유통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20.2% 증가(31.3억 달러)하였다. 그 외 일본(21.6억 달러,  $\Delta$ 25.4%), 중국(18.2억 달러,  $\Delta$ 39.0%) 등은 감소하였다.

**【업종】** 제조업이 전년 동기 대비 34.5% 감소한 53.3억 달러, 서비스업이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70.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투자의 미국 쏠림현상 및 국내 설비투자 위축(1분기 2.1% 감소, 한국은행)에 따라 전기·전자(14.0억 달러,  $\Delta$ 61.6%), 기계장비·의료정밀(2.6억 달러,  $\Delta$ 77.0%) 등 장치산업 위주로 감소했다. 한편, 서비스업은 한국 시장진출의 목적으로 유통(13.2억 달러, +73.3%), 정보통신(10.9억 달러, +9.4%) 업종의 투자신고가 증가하였다.

**【투자도착】** 2025년 상반기 투자자금 도착은 72.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다. 이는 지난해 양호한 투자신고 실적(345.7억 달러, +5.7%)을 바탕으로 기존에 투자 신고된 건들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 데이터 센터, 대형마트 등 서비스업 영위 사업장의 투자 유입 확대에 따라 그린필드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4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M&A 자금도착도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27.9억 달러, +0.2%)하였다.

**【국가】** 미국발 투자는 최근 관세 이슈의 영향이 적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자금이 도착하여 증가(14.7억 달러, +32.9%)하였으나, EU(19.7억 달러, △29.0%), 일본(3.9억 달러, △59.8%), 중국(1.2억 달러, △48.6%) 등의 투자자금 도착은 감소하였다.

**【업종】** 제조업 투자가 대폭 감소(15.1억 달러, △54.1%)하였는데, 특히, 전기·전자(5.7억 달러, △46.4%), 기계장비·의료정밀(2.1억 달러, △57.8%) 등 상반기 투자 신고가 감소된 업종을 중심으로 자금도착이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하였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투자 집행이 보류된 영향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와 대조적으로 서비스업은 상반기 대형 M&A 건으로 금융·보험(30.5억 달러, +39.3%) 분야 자금이 대폭 유입되면서 증가(54.1억 달러, +51.0%)하였다.

**【평가 및 정책방향】** 이번 상반기 외국인투자 신고실적이 감소한 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리 외국인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외국인투자 도착실적은 기존 신고된 투자 건들이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유입되면서 양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상반기 실적만으로는 올 한해 외국인직접투자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신정부 출범, 미국 관세 불확실성 완화를 계기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개선되어 상저하고(上底下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어서, “정부는 △AI,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그린필드 첨단산업을 타겟팅한 현지 IR, △국내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투자 수요를 발굴

하는 지역순회 IR(국내 카라반)\* 등 다양한 국내·외 유치활동을 통해 신규·증액 투자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투자 신고에 그치지 않고, 국내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실제투자(자금도착)로 이어질 수 있도록 5천만불 이상 대형 투자 유망 신고 건에 대해서는 1:1 밀착 관리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주요 광역지자체를 방문하여 지역소재 외투기업과 간담회, 1:1 투자상담 또는 현장방문 실시  
→ 6.25일 1차 카라반(충남지역) 既 실시, 7.10일 2차 카라반(충북지역) 실시예정

- 본 동향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과 (사)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및 외국인직접투자통계시스템(INSC)을 따름

- 본 자료는 2025년 6월 30일까지의 잠정적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 분기 발표되며, 2025년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25년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 별첨 】 202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부.

|       |                |     |     |                    |
|-------|----------------|-----|-----|--------------------|
| 담당 부서 | 투자정책관<br>투자유치과 | 책임자 | 과 장 | 권기만 (044-203-4080) |
|       |                | 담당자 | 사무관 | 노형철 (044-203-4089) |
|       |                |     | 사무관 | 김해원 (044-203-4086) |

## I. 총괄

□ (실적) **신고 131.0억불**(전년동기대비 △14.6%), **도착 72.9억불**(+2.7%) \* 잠정치



□ (신고) 美 관세정책 및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지연되면서 투자의향을 나타내는 투자신고는 감소

○ (유형) 그린필드 소폭 감소, M&A 대폭 감소

\* 그린필드 109.7억불(△4.5%), M&A 21.3억불(△44.6%)

○ (국가) EU(작년 해상풍력입찰 효과)·미국(유통매장 등 서비스 중심)은 증가, 일본·중국·중국은 감소

\* 美 31.3억불(+20.2%), EU 22.4억불(+14.5%), 日 21.6억불(△25.4%), 中 18.2억불(△39.0%)

○ (업종) 제조업 감소, 서비스업(유통·정보통신 중심) 증가

\* 제조업 53.3억불(△34.5%), 서비스업 70.9억불(+10.6%)

□ (도착) 지난해 양호한 투자신고 실적(345.7억 달러, +5.7%)을 바탕으로 기준에 투자 신고된 건들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

○ (유형) 그린필드(데이터센터, 대형마트 등), M&A 모두 증가

\* 그린필드 45.0억불(+4.4%), M&A 27.9억불(+0.2%)

○ (국가) 미국(서비스중심) 증가, EU·일본·중국 감소(미국 관세영향)

\* 미국 14.7억불(+32.9%), EU 19.7억불(△29.0%), 일본 3.9억불(△59.8%), 중국 1.2억불(△48.6%)

○ (업종) 제조업 감소(미국 관세영향), 서비스업 증가(대형 M&A 영향)

\* 제조업 15.1억불(△54.1%), 서비스업 54.1억불(+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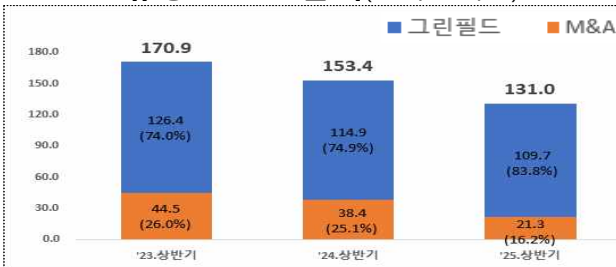
## II. 세부 동향(유형별·국가별·업종별·자금별·지역별)

### 【투자신고】

####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형(109.7억불, △4.5%, 비중 83.8%), M&A형(21.3억불, △44.6%, 비중 16.2%) 모두 감소

< 유형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유형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그린필드형) 109.7억불(전년비 △4.5%)
  - 제조업(48.8억불, △30.3%) 감소, 서비스업(54.3억불, +46.5%) 증가
- (M&A형) 21.3억불(전년비 △44.6%)
  - 제조업(4.4억불, △60.5%), 서비스업(16.6억불, △38.7%)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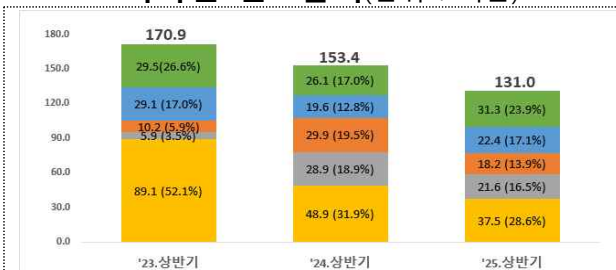
- (건수) 그린필드(1,663건, +1.7%), M&A(151건, +12.7%) 모두 증가

#### 2.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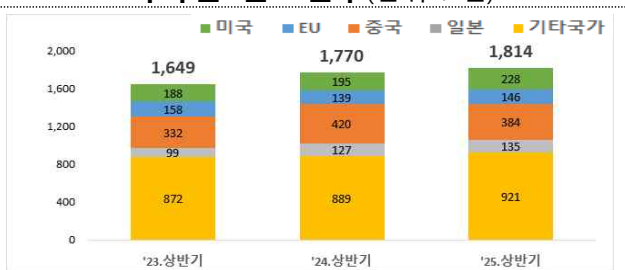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31.3억불, +20.2%, 비중 23.9%)·EU(22.4억불, +14.5%, 비중 17.1%) 증가, 일본(21.6억불, △25.4%, 비중 16.5%)·중국(18.2억불, △39.0%, 비중 13.9%)·기타국가(37.5억불, △23.3%, 비중 28.6%) 감소

< 국가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국가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미국) 31.3억불(전년比 +20.2%, 비중 23.9%)

- (업종) 제조업(9.6억불, △16.2%) 감소, 서비스업(21.3억불, +97.3%) 증가
- (유형) 그린필드(29.9억불, +23.5%) 증가, M&A(1.5억불, △22.5%) 감소

○ (EU) 22.4억불(전년比 +14.5%, 비중 17.1%)

- (업종) 제조업(8.7억불, △21.4%) 감소, 서비스업(11.7억불, +51.2%) 증가
- (유형) 그린필드(15.6억불, +3.5%), M&A(6.8억불, +51.7%) 모두 증가

○ (중국) 18.2억불(전년比 △39.0%, 비중 13.9%)

- (업종) 제조업(8.4억불, △62.9%) 감소, 서비스업(8.7억불, +29.3%) 증가
- (유형) 그린필드(18.2억불, △38.3%), M&A(0.1억불, △85.6%) 모두 감소

○ (일본) 21.6억불(전년比 △25.4%, 비중 16.5%)

- (업종) 제조업(18.4억불, △29.4%) 감소, 서비스업(3.2억불, +9.6%) 증가
- (유형) 그린필드(21.2억불, △12.0%), M&A(0.4억불, △92.0%) 모두 감소

○ (기타국가) 37.5억불(전년比 △23.3%, 비중 28.6%)

- (업종) 제조업(8.2억불, △19.2%), 서비스업(26.0억불, △27.7%) 모두 감소
- (유형) 그린필드(24.9억불, +12.6%) 증가, M&A(12.6억불, △53.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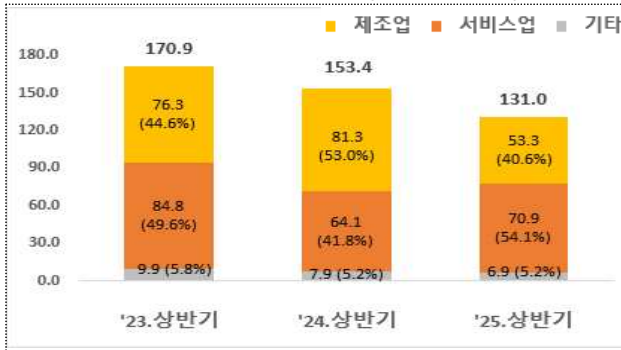
□ (건수) 미국(228건, +16.9%)·EU(146건, +5.0%)·일본(135건, +6.3%)·기타국가(921건, +3.6%) 증가, 중국(384건, △8.6%) 감소

### 3. 업종별

□ (금액) 제조업(53.3억불, △34.5%, 비중 40.6%)·기타업종(6.9억불, △13.6%, 비중 5.2%) 감소, 서비스업(70.9억불, +10.6%, 비중 54.1%) 증가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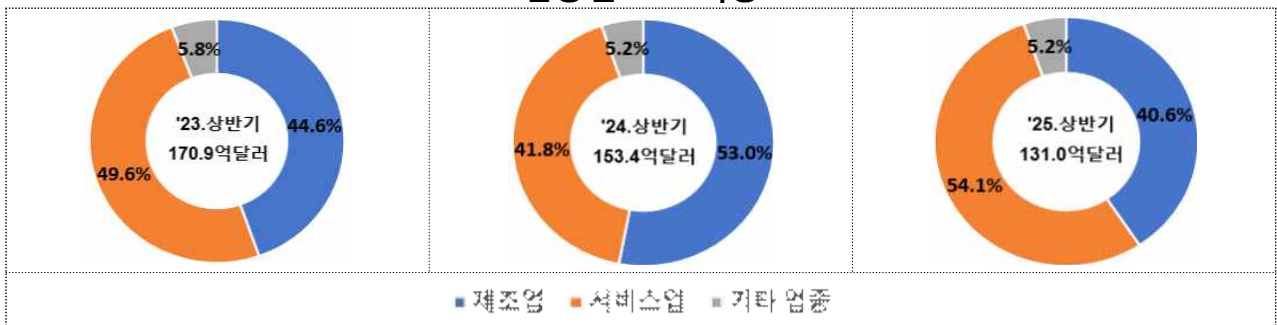
< 업종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신고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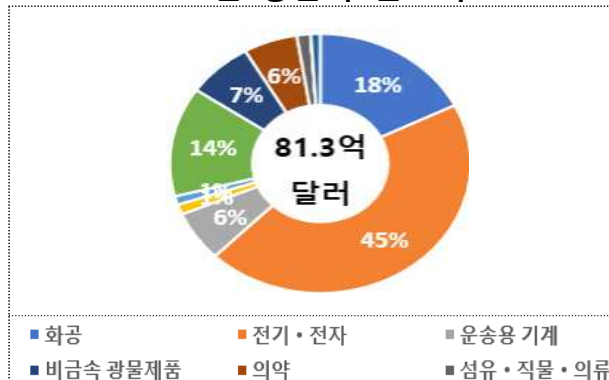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 (제조업) 53.3억불(전년비 △34.5%, 비중 40.6%)

< '24년 상반기 신고액 >



< '25년 상반기 신고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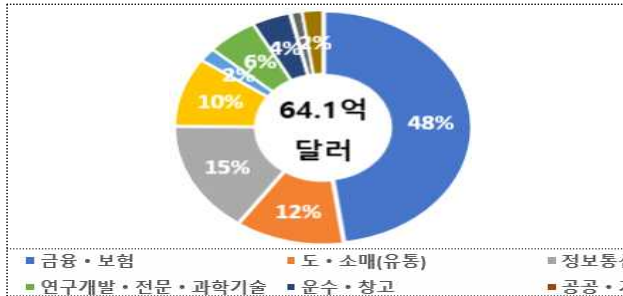


- (증가업종) 화공(16.00억불, +11.8%), 운송용 기계(7.72억불, +51.8%), 금속·금속가공(4.89억불, +377.9%) 등
- (감소업종) 전기·전자(13.98억불, △61.6%), 기계장비·의료정밀(2.55억불, △77.0%), 비금속광물(2.48억불, △57.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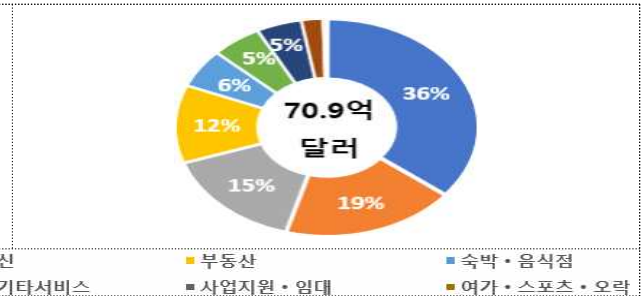
○ (서비스업) 70.9억불(전년비 +10.6%, 비중 54.1%)



< '24년 상반기 신고액 >



< '25년 상반기 신고액 >



- (증가업종) 도·소매(유통)(13.20억불, +73.3%), 정보통신(10.88억불, +9.4%), 부동산(8.25억불, +34.3%) 등
- (감소업종) 금융·보험(25.32억불, △17.3%), 사업지원·임대(0.24억불, △68.3%), 여가·스포츠·오락(0.03억불, △97.7%)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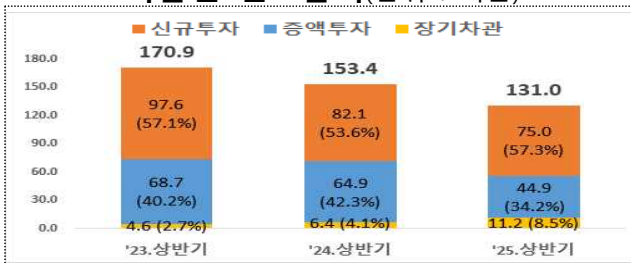
□ (건수) 서비스업(1,500건, +5.0%)·기타업종(69건, +30.2%) 증가, 제조업(245건, △15.2%) 감소

#### 4. 자금별

□ (금액) 신규투자(75.0억불, △8.7%, 비중 57.3%), 증액투자(44.9억불, △30.8%, 비중 34.2%) 감소, 장기차관(11.2억불, +75.7%, 비중 8.5%) 증가

- \* 신규투자 : 외국인이 최초로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신규법인설립 또는 유상증자 참여)하거나 국내기업의 기존주식(구주)을 취득하는 것
- 증액투자 : 외국인투자를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이 동일 외국인투자가 또는 새로운 외국인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는 경우
- 장기차관 : 외국인투자가 또는 모기업 등이 기업에게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

< 자금별 신고금액(단위 : 억불) >



< 자금별 신고건수(단위 : 건) >



○ (신규투자) 75.0억불(전년비 △8.7%)

- 제조업(37.5억불, △8.7%), 서비스업(35.7억불, △9.0%) 모두 감소



○ (증액투자) 44.9억불(전년比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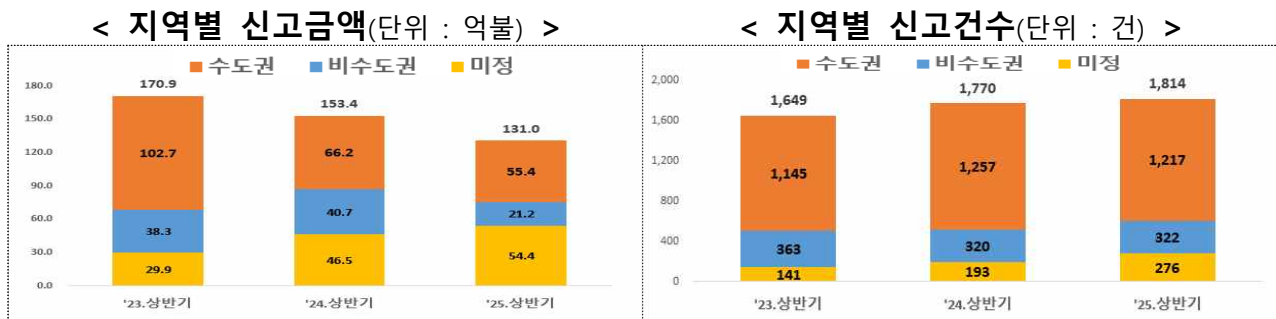
- 제조업(13.7억불, △62.9%) 감소, 서비스업(28.5억불, +30.4%) 증가

□ (건수) 신규투자(1,144건, +2.1%) 증가, 증액투자(591건, △1.2%) 감소

## 5. 지역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미정(54.4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금액) 수도권(55.4억불, △16.2%, 비중 42.3%), 비수도권(21.2억불, △47.9%, 비중 16.2%) 감소, 투자지역 미정(54.4억불, +17.0%, 비중 41.5%) 증가



○ (수도권) 55.4억불(전년比 △16.2%)

- 제조업(9.8억불, △57.2%) 감소, 서비스업(43.5억불, +1.9%) 증가

\* 서울(38.4억불, △11.7%), 인천(5.3억불 +456.0%), 경기(11.7억불, △46.2%)

○ (비수도권) 21.2억불(전년比 △47.9%)

- 제조업(12.6억불, △53.3%), 서비스업(5.0억불, △33.9%) 모두 감소

\* 증가 시·도 : 부산(6.77억불, +213.6%), 경남(2.79억불, +252.5%),  
세종(1.17억불, +28,338.8%), 강원(0.59억불, +560.1%)

\* 감소 시·도 : 충북(2.23억불, △55.4%), 충남(2.05억불, △72.5%),  
전남(1.68억불, △67.4%), 대전(1.47억불, △72.1%),  
경북(1.38억불, △51.2%), 울산(0.61억불, △44.7%),  
전북(0.21억불, △97.3%), 대구(0.15억불, △77.2%),  
제주(0.05억불, △97.9%), 광주(0.04억불,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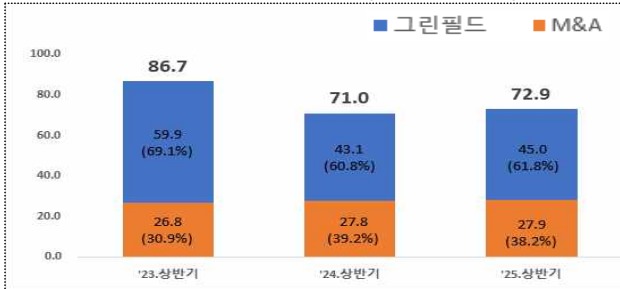
□ (건수) 수도권(1,217건, △3.2%) 감소, 비수도권(322건, +0.6%) 증가

# 【투자도착】

## 1. 유형별

- (금액) 그린필드형(45.0억불, +4.4%, 비중 61.8%), M&A형(27.9억불, +0.2%, 비중 38.2%) 모두 증가

< 유형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유형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그린필드형) 45.0억불(전년比 +4.4%)

- 제조업(11.3억불, △52.7%) 감소, 서비스업(30.2억불, +75.7%) 증가

- (M&A형) 27.9억불(전년比 +0.2%)

- 제조업(3.8억불, △57.7%) 감소, 서비스업(23.9억불, +28.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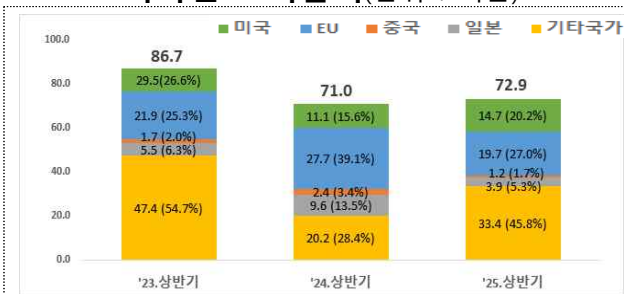
- (건수) 그린필드(1,215건, △2.4%), M&A(125건, △15.0%) 모두 감소

## 2. 국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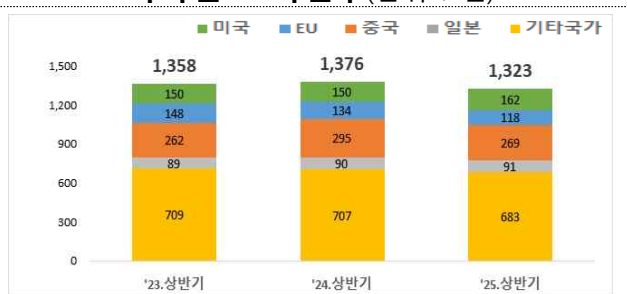
(\* EU : 영국 제외 27개국)

- (금액) 미국(14.7억불, +32.9%, 비중 20.2%)·기타국가(33.4억불, +65.6%, 비중 45.8%) 증가, EU(19.7억불, △29.0%, 비중 27.0%)·일본(3.9억불, △59.8%, 비중 5.3%)·중국(1.2억불, △48.6%, 비중 1.7%) 감소

< 국가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국가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미국) 14.7억불(전년比 +32.9%, 비중 20.2%)

- (업종) 제조업(5.0억불, △31.1%) 감소, 서비스업(9.7억불, +181.2%) 증가

- (유형) 그린필드(13.9억불, +28.9%), M&A(0.8억불, +170.8%) 모두 증가

○ (EU) 19.7억불(전년比 △29.0%, 비중 27.0%)

- (업종) 제조업(4.8억불, △48.9%), 서비스업(12.9억불, △28.1%) 모두 감소

- (유형) 그린필드(12.2억불, △5.7%), M&A(7.5억불, △49.4%) 모두 감소

○ (중국) 1.2억불(전년比 △48.6%, 비중 1.7%)

- (업종) 제조업(0.8억불, △63.4%) 감소, 서비스업(0.5억불, +50.5%) 증가

- (유형) 그린필드(1.1억불, △45.8%), M&A(0.2억불, △60.9%) 모두 감소

○ (일본) 3.9억불(전년比 △59.8%, 비중 5.3%)

- (업종) 제조업(1.5억불, △80.7%) 감소, 서비스업(2.3억불, +35.2%) 증가

- (유형) 그린필드(3.5억불, △44.3%), M&A(0.3억불, △90.0%) 모두 감소

○ (기타국가) 33.4억불(전년比 +65.6%, 비중 45.8%)

- (업종) 제조업(3.0억불, △52.2%) 감소, 서비스업(28.8억불, +130.9%) 증가

- (유형) 그린필드(14.4억불, +28.8%), M&A(19.0억불, +111.3%) 모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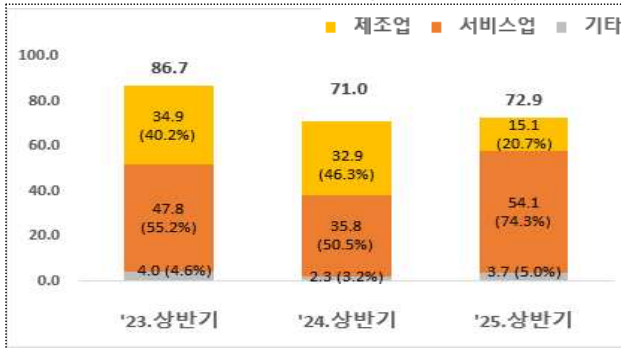
□ (건수) 미국(162건, +8.0%), 일본(91건, +1.1%) 증가, EU(118건, △11.9%), 중국(269건, △8.8%), 기타국가(683건, △3.4%) 감소

### 3. 업종별

□ (금액) 제조업(15.1억불, △54.1%, 비중 20.7%) 감소, 서비스업(54.1억불, +51.0%, 비중 74.3%)·기타업종(3.7억불, +62.2%, 비중 5.0%) 증가

\* 기타업종 : 1차산업(농·축·수산·광업),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 업종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업종별 도착건수(단위 :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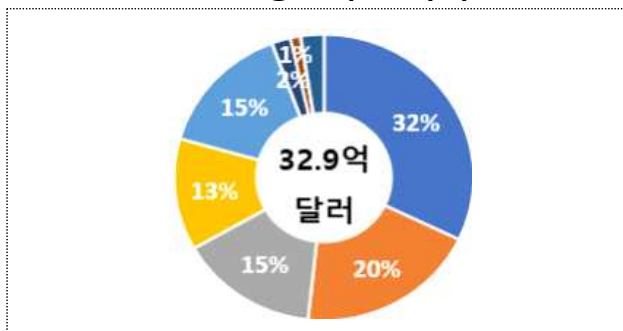


< 업종별 FDI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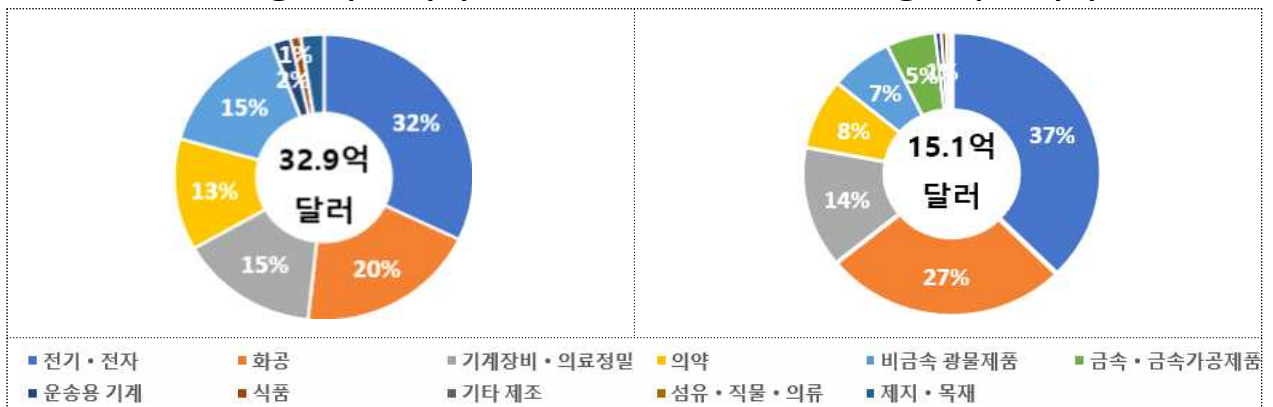


○ (제조업) 15.1억불(전년비 △54.1%, 비중 20.7%)

< '24년 상반기 도착액 >



< '25년 상반기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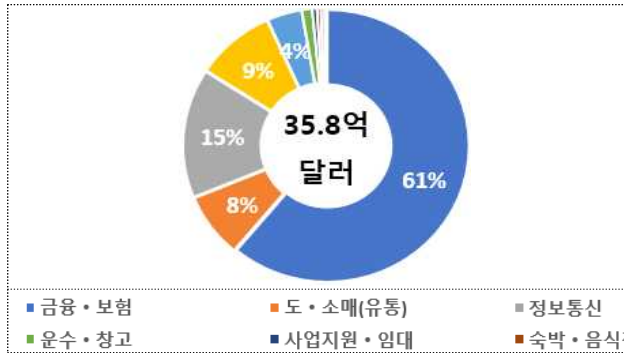


- (증가업종) 금속·금속가공(0.81억불, +4,572.3%), 기타 제조(0.06억불, +180.5%), 섬유·직물·의류(0.03억불, +3,639.8%)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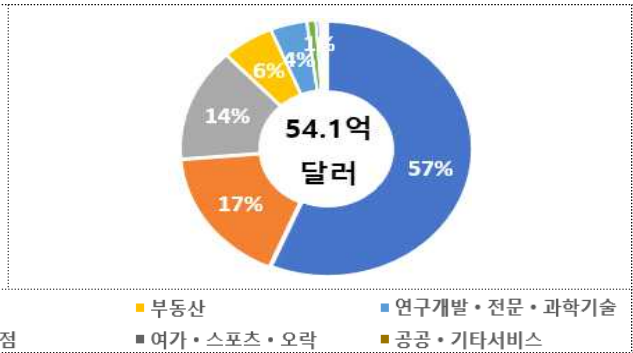
- (감소업종) 전기·전자(5.66억불, △46.4%), 화학(4.02억불, △37.5%), 기계장비·의료정밀(2.08억불, △57.8%) 등

○ (서비스업) 54.1억불(전년비 +51.0%, 비중 74.3%)

< '24년 상반기 도착액 >



< '25년 상반기 도착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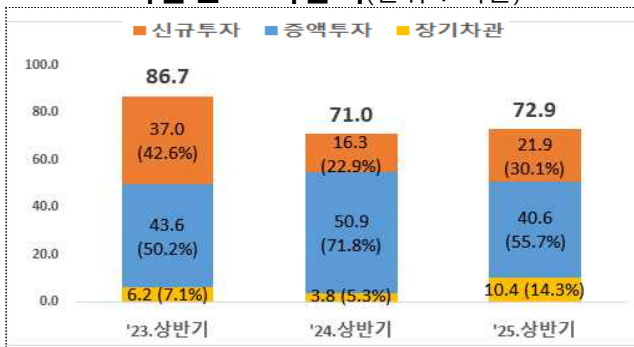
- (증가업종) 금융·보험(30.51억불, +39.3%), 도·소매(유통)(9.38억불, +240.9%), 정보통신(7.76억불, +41.0%) 등
- (감소업종) 부동산(3.14억불, △4.4%)

□ (건수) 제조업(161건, △8.5%)·서비스업(1,115건, △3.4%) 감소, 기타업종(47건, +2.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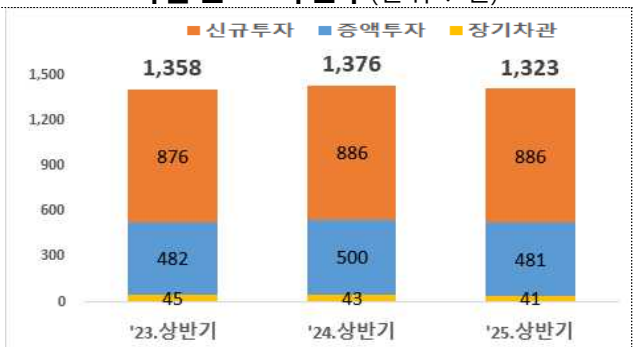
#### 4. 자금별

□ (금액) 신규투자(21.9억불, +34.6%, 비중 30.1%)·장기차관(10.4억불, +176.8%, 비중 14.3%) 증가, 증액투자(40.6억불, △20.3%, 비중 55.7%) 감소

< 자금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자금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신규투자) 21.9억불(전년比 +34.6%)
  - 제조업(2.7억불, △55.1%) 감소, 서비스업(19.0억불, +92.5%) 증가
- (증액투자) 40.6억불(전년比 △20.3%)
  - 제조업(9.4억불, △62.9%) 감소, 서비스업(28.2억불, +19.2%) 증가

□ (건수) 신규투자(886건, -) 전년 동일, 증액투자(481건, △3.8%) 감소

## 5.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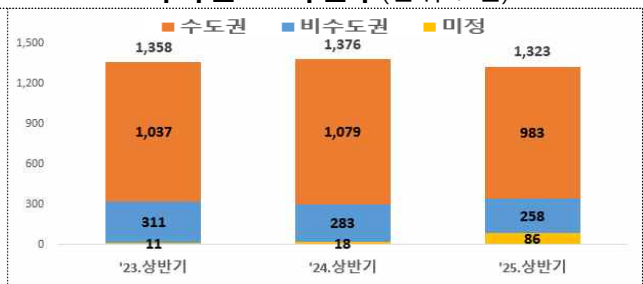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비수도권 : 이외 14개 시·도  
미정(0.1억불) : 투자지역을 정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 (금액) 수도권(58.1억불, +18.2%, 비중 79.7%), 투자지역 미정(0.1억불, +270.0%, 비중 0.1%) 증가, 비수도권(14.7억불, △32.6%, 비중 20.1%) 감소

< 지역별 도착금액(단위 : 억불) >



< 지역별 도착건수(단위 : 건) >



○ (수도권) 58.1억불(전년비 +18.2%)

- 제조업(7.5억불, △53.0%) 감소, 서비스업(48.8억불, +49.9%) 증가

\* 서울(45.6억불, +41.8%), 인천(3.1억불 +216.3%), 경기(9.4억불, △41.4%)

○ (非수도권) 14.7억불(전년비 △32.6%)

- 제조업(7.6억불, △55.2%) 감소, 서비스업(5.2억불, +61.3%) 증가

\* 증가 시·도 : 부산(3.39억불, +54.3%), 충북(2.20억불, +87.5%),  
전남(1.78억불, +1.7%), 울산(0.75억불, +91.0%),  
강원(0.71억불, +256.1%), 경남(0.67억불, +68.6%),  
대구(0.40억불, +73.1%), 세종(0.02억불, +2,405.0%)

\* 감소 시·도 : 충남(2.02억불, △64.8%), 대전(1.46억불, △66.7%),  
경북(0.95억불, △42.6%), 전북(0.24억불, △93.1%),  
제주(0.04억불, △2.2%), 광주(0.04억불, △31.5%),

□ (건수) 수도권(983건, △8.9%), 비수도권(258건, △8.8%) 모두 감소